

## 신유고연방 소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 출범

### □ 신유고연방 의회, 연방의 소멸 및 새로운 국가연합의 출범을 공식 선포

-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는 2003년 2월 4일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을 해체하고 느슨한 형태의 새 국가연합을 창설하는 내용의 헌장을 채택하였음.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창설된 신(新)유고연방이 소멸하고 “세르비아-몬테네그로”라 불리는 새 국가연합이 탄생하게 되었음.
- 신유고연방 상원과 하원은 이날 26대 7, 84대 3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동 헌장을 통과시켰으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의회도 각각 이를 통과시켰음. 이와 더불어 동 헌장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률도 채택되었음. 동 헌장과 시행법이 의회 통과 직후 발효됨에 따라 1992년의 신유고연방 헌법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됐으며 신유고연방은 해체되었음.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정부는 2002년 3월 14일, 신유고연방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 대체하는 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였음. 동 협정은 같은 해 4월 9일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에 회부되었음. 이후 양측은 9개월간의 협상 끝에 금년 1월 초 국가연합 창설을 위한 헌장과 관련 시행법에 전면 합의하였음.
- 당초 별개의 독립국으로 분리를 추진했던 양 공화국이 느슨하게나마 국가연합 체제를 유지하게 된 데는 발칸 반도의 계속되는 분열을 막으려는 유럽연합(EU)의 강한 압력과 중재가 큰 힘으로 작용하였음.

## □ 국가연합 현장의 주요 내용

- 동 현장에 의하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각자의 대통령, 의회, 내각 및 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연합도 대통령, 의회, 내각 및 법원을 갖게 됨. 국가연합 의회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대표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는 단원제(單院制) 형태이며, 국가연합 대통령은 국가연합 의회에서 선출됨. 또한 양국은 이전 연방체제에서와 같이 내무·재무·사법 및 교통운송 등의 분야를 개별적으로 관할함.
- 다만, 외교 및 국방은 연방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국가연합 정부의 합동행정기구가 관장하게 되는데, 국가연합 및 양국 대통령들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최고국방위원회가 국방을 총괄하는 단일 국방체제를 유지함. 또한, 동 국가연합은 국제적으로는 UN을 위시한 각종 국제 기구에서는 하나의 의석을 갖는 단일 실체로 남으며 각 공화국이 번갈아 대표를 내고, 현행 조약과 협정에 대한 유고연방의 권리와 책임도 모두 인수함.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은 126석의 새 의회를 15일 내에 구성해 대통령과 5인 각료회의를 선출하며, 국가연합의 수도는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두게 되지만 외교와 국방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합동행정기구의 일부는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카에 두게 됨.
- 동 현장은 경제적으로 두 나라의 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함. 세르비아는 기존 유고슬라비아 디나르貨를 사용하는 반면 몬테네그로는 새로이 유로貨를 사용하고, 현재의 독자적인 조세 및 관세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경제면에서는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국가가 됨.

- 동 헌장에는 두 공화국간의 무역·통관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차이를 EU의 기준에 따라 상호 조정해간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생 국가연합을 EU 체제에 편입시켜 발칸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도모하려는 EU의 입장과 장기적으로 EU 가입을 바라는 국가연합의 입장이 서로 일치한 결과로 보임.
- 또한, 동 헌장의 내용에는 두 공화국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뒤에 별개의 국가로 분리·독립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가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역사

- 유고슬라비아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인근 지역의 슬라브 민족 거주지역을 편입시켜 건국한 “세르보-크로아트-슬로이벤 왕국”으로 출발하였으며, 1929년 알렉산더 왕이 헌법을 중지시키고 독재왕정을 펴면서 ‘남쪽 슬라브 민족의 땅’을 의미하는 유고슬라비아로 국명을 바꾸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여 세르비아를 점령지역으로 선포하고,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들의 거주지역에 나치 괴뢰정부를 세웠음. 나머지 지역은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 독일의 동맹국들에 합병됐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치 독일에 협력한 크로아티아계 파시스트들과 반(反)나치 파르티잔 저항군 사이의 투쟁이 향후 민족 갈등의 중요한 불씨가 되었음.
-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년 왕정이 폐지되고, 유고연방은 반나치 파르티잔 활동을 주도했던 티토(J. Tito)의 지도 아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및 마케도니아로 구성된 공산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재탄생하였음.

- 동구권에서 유일하게 소련군의 점령 없이 공산화를 이룬 티토는 냉전 시대 소련의 스탈린에 정면으로 맞서 유고식 사회주의를 지켜나가면서 동·서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편, 알바니아와 보스니아의 이슬람 교도, 크로아티아의 카톨릭 교도, 세르비아의 정교회 교도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족의 집합체를 유지하여 유고슬라비아를 동구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융성한 나라로 만들었음.
-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1980년 티토가 사망하자마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여, 비효율적인 집단 지도체제와 저마다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수많은 지역 공산당의 통치로 사분오열한 끝에 1989년 동유럽 공산정권들이 무너지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각각 독립을 선포하면서 1990년대의 내전에 휘말렸음.
-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연방 공화국들이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내전에 휘말렸으며, 전쟁을 멈추려는 서방의 시도는 집단지도체제의 무능함만을 부각시켰음. 결국 1992년 기존의 유고연방이 해체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공화국만으로 1992년 신유고연방공화국이 탄생했으나, 내전 종료 후의 전범 처리 문제 및 코소보 자치주에서의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서방과 대립하면서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왔음.

전문연구원 오경일(☎3779-6646)  
E-mail : OKI1122@koreaexim.go.kr